

1. 시습(時習): 배우고 실천하라.

배우고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뜻을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와준다면 그 얼마나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가는 옳은 길을 변함없이 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군자가 아니겠는가?

자왈,
 子曰,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유붕자원방래, 불역락호?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논어(論語)』, 「학이(學而)」

시(時)

- ‘時’를 집해는 ‘以時’라고 하여 ‘때에 맞게’라고 해석, 집주는 ‘時時’라고 하여 ‘항상’의 뜻으로 풀이

열(說)

- 원래는 ‘말하다’(설)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悅’(열)자와 통하여 ‘기뻐하다’라는 뜻

붕(朋)

- 친구, 벗. 정현은 “같은 스승에게 배운 친구를 ‘朋’이라 한다(同師爲朋)”고 설명함

부지(不知)

- 집해에서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였고, 집주에서는 남이 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다고 해석

온(慍)

- 성내다, 노여워하다.

不亦 ~ 乎

- 또한 ~이 아니겠는가? “정말 ~하다”는 말의 반어적 표현

1. 시습(時習): 배우고 실천하라.

① 『집해』

— 왕속

- ‘시(時)’란 배우는 자가 때에 맞게 언제나 외우고 익히는 것
- 세대에 외우고 익히고 학업을 그만두지 않게 되어 이 때문에 기뻐하게 됨

— 정현

- 같은 스승에게 배운 경우를 ‘붕(朋)’이고 뜻을 같이 하는 경우를 ‘우(友)’라 함(황간의 『논어의소(論語義疏)』에 인용)
- ‘우(友)’, ‘붕(朋)’을 나누는 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

— 하안

- ‘온(慍)’은 ‘성내다’는 뜻
- 일반적으로 사람에게에는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군자는 이에 대해 성내지 않음

1. 시습(時習): 배우고 실천하라.

① 『집주』

- 습(習) = 羽 + 白(日)”
 - ‘습(習)’은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다.
 - 배워서 그치지 않음이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 ‘붕(朋)’ → 동류(同類)
 - ‘붕(朋)이 먼 곳에서 온다면 가까이 있는 자는 말할 나위도 없다.’
- 기쁨(說): 마음 속에 있는 것
- 즐거움(樂): 발산하여 몸 밖으로 드러남

② 『집주』의 윤씨(尹氏)

- ‘학(學)’은 자신의 일이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남에게 달려있으니, 어찌 노여워할 것인가?



1. 시습(時習): 배우고 실천하라.

① 전체 대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집주』
 - 공자의 일상적인 모습을 나타낸 구절
 - 자신의 생활 철학 나열

- 『집해』
 - 타인의 객관적인 지식 여부에 대한 자신의 호오(好惡)에 초점
 - 공부하는 학생을 둔 기쁨
 - 먼 곳에서 찾아오는 학생
 - 부족한 학생도 인정하고 참아주는 교사
 - 문장 전체가 배움의 과정과 관련

- 『논어』의 첫 구절
- 역대로 매우 다양한 해석
- 여전히 논란이 많은 문장
- 『논어』,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고전

2. 무본(務本): 근본이 중요하다.

사람됨이 평소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에게 공경하면서 윗사람을 거스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 거스르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본 적이 없다.

군자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근본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니, 근본이 제 자리를 잡으면 여러 가지 일에서의 가장 올바른 방법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에게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인(仁)의 근본이라고 할 것이다.

유자왈,
有子曰,

기위인야효제, 이호범상자, 선의,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불호범상, 이호작란자, 미지유야.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군자무본, 본립이도생.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효제야자, 기위인지본여!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논어(論語)』, 「학이(學而)」

유자(有子)

- 공자의 제자로 이름은 유약(有若)
- ‘자(子)’라는 호칭을 쓴 것으로 보아 공자 사후 논어의 편찬 과정에 유약의 제자가 참여하였다고 추측됨

제(弟)

- ‘悌’(공손할 제)와 같은 말, 윗사람을 잘 받들고 공손한 것
- 논어의 옛 판본에서는 ‘弟’로 썼는데, 후대의 판본에서는 ‘悌’로 쓴 것도 있음

선(鮮)

- 드물다. 거의 없다는 말이지만 내면적인 의미는 없다는 뜻

범상(犯上)

- 윗사람을 범하다. 즉 윗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함

2. 무본(務本): 근본이 중요하다.

㉠ 『집주』

- 인(仁)은 사랑의 원리인 동시에 마음의 덕이다. ‘위인(爲仁)’이라는 것은 인(仁)을 행한다는 말과 같다.
- 효제(孝弟): 인(仁)을 행하는 근본

어떤 사람이 묻기를 “효제(孝弟)가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라면 그것은 효제(孝弟)로 말미암아야만 인(仁)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하니,

나(주희)는 대답하기를, “아니다. 인(仁)을 행함은 효제(孝弟)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효제(孝弟)는 인(仁)의 일부분이므로, 그것이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 된다고 말하면 옳지만, 그것이 바로 인(仁)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

대체로 인(仁)이란 성(性), 그 자체이고 효제(孝弟)는 그것의 한 용(用)이다. 따라서 성(性) 속에서는 다만 인의예지(仁義禮智) 네 가지가 있을 뿐이니, 어찌 효제(孝弟)에서 오겠는가? 그러나 인(仁)은 사랑을 주(主)로 하며 사랑은 애친(愛親)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효제(孝弟)가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맹자(孟子)』, 「진심 상(盡心上)」

- 끝 구절의 ‘위인(爲仁)’에 대해 고주와 신주는 해석상 큰 차이를 보인다.
- 집주는 ‘행인(行仁)’ 즉 ‘인을 행하다’라고 해석한 반면에 집해는 ‘위(爲)’를 ‘...이다’라고 해석

2. 무본(務本): 근본이 중요하다.

① 『집해』

- 효도와 공손함이 인의 근본
- 효성스럽고 공손함이 바로 인의 근본이고 효성스럽고 공손함 그 자체가 바로 인에 포함되는 것
- ‘위(爲)’: 선진(先秦) 시대의 문헌에서 ‘~이다’라고 해석
- 당본(唐本), 족리본(足利本), 정평본(正平本) 등의 판본 → 기위인지본여(其爲仁之本與)의 ‘위(爲)’자가 빠져 있음
- ‘본성’과 ‘이치’에 대한 주장을 펼친 집주의 논리적 기반이 흔들림

3. 삼성(三省):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자.

나는 매일 여러 차례 다음 사항에 대해 반성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 능력의 전부를 발휘하였는가? 친구들과 사귄 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하였는가?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에 대해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가?

증자왈,
曾子曰,

오일삼성오신,
吾日三省吾身,

위인모이불충호? 여붕우교이불신호?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전불습호?
傳不習乎?

『논어(論語)』, 「학이(學而)」

증자(曾子)

- 공자의 제자로 이름은 ‘참(參)’
- 증자 역시 후대 논어의 편찬에 그의 제자가 참여하여 논어에 ‘자’라는 호칭으로 쓰였을 것

삼성(三省)

- 세 번 반성한다.
- 여기서 말하는 세 번은 정확한 세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뜻

모(謀)

- 도모하다. 어떤 일을 행하려 한다.

전불습(傳不習)

- 『집주』: 전해 받은 것을 익히지 않다.
- 『집해』: 자신이 익히지도 않은 것을 전해준다.

3. 삼성(三省):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자.

① 『집주』

- 자기 자신의 심신(心身)을 다함을 ‘충(忠)’이라고 하고, 자기가 한 말을 성실하게 이행함을 ‘신(信)’이라 한다. (盡己之謂忠 以實之謂信.)
- ‘전(傳)’은 스승에게 배운 것, ‘습(習)’은 몸에 익숙하게 함이다.
- ‘충(忠)’과 ‘신(信)’으로 ‘전습(傳習)’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충(忠): 먼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한다.
 ‘신(信):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주었는지를 반성한다.

② 『집해』와 『집주』의 해석상 차이

- 『집주』
 - 선생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
 - 학생의 입장에서 반성하는 것
- 『집해』
 - 자신도 제대로 익히지 않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
 - 스승의 입장에서 반성하는 것
- 앞의 두 가지 반성의 내용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이 또한 자기 스스로의 학습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타인을 가르치는 태도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고자 한다면, 집해의 해석에 장점이 있음
- 집주는 “증자가 이 세 가지 것에 대해 날마다 자신을 반성했다.”라고 언급함
- 이는 ‘三’을 아래에 나오는 세 가지 사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 것처럼 보임
- 그러나 한문에서 동사의 앞에 나오는 숫자가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 대부분 ‘세 차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여기의 ‘세 차례’란 정확하게 세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이라는 막연하게 많은 횟수를 나타냄

3. 삼성(三省):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자.

⑦ 다양한 해석의 이유

나이 50이 되어서 『주역』을 공부했더니 큰 허물이 없게 되었다.

[오십이학역, 무대과의]
 [五十以學易, 無大過矣]

『논어(論語)』, 「술이(述而)」

공자가 『주역』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제본했던 끈이 3번 끊어졌다.

[위편삼절]
 [韋編三絕]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

— 『주역』

- 한(漢)나라 때 완성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정한 주석이나 그 설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오류가 있음